

보도해명자료 (‘19. 5. 1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2019년 1분기 사용비율은 전년대비
증가(머니투데이 5.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2018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최종 점유율(용량기준)은 72.5%이며, 2019년 1분기 사용비율도 전년대비 증가
- ◇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
- ◇ 5월 10일 머니투데이, <외로운 치킨게임, 태양광이 흔들린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고전하는 사이 경쟁상대인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음
 - 2014년 82.9%였던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지난해 66.6%로 떨어진 반면, 같은 기간 중국산 점유율은 17.1%에서 33.4%로 상승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2018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최종 점유율(용량기준)은 72.5%이며, 2019년 1분기에도 전년대비 증가한 78.2%를 달성
 - *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설치비중(용량기준):
(‘16) 72.0% → (‘17) 73.5% → (‘18) 72.5% → (‘19.1분기) 78.2% (출처: 한국에너지공단)
- 아울러, 정부는 약 6개월간 관련업계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‘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수립·발표(4.4)한 바 있음
 - 동 대책은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, 국내 태양광·풍력 제조기술 고도화,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,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이용필 과 장(044-203-5360)
이기현 사무관(044-203-5362)